강해설교연구원

설교는 성경의 세계와 청중의 세계, 곧 성도들의 세계를 연결하는 도구이다. 설교자의 임무는 역사와 문화, 사회적 배경, 언어와 지리적 배경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수천년 전에 씌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재해석하여 오늘날의 언어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존 스토트(J. Stott) 목사가 설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Bible speaks today).

그러므로 수천년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메꾸면서 성경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하여는, 설교자들이 각고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성경 텍스트를 연구하고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설교자들이 이러한 복음설교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많은 출판물들이 쏟아져 나오곤 있지만 실상 설교 준비에 필요한 자료는 의외로 부족한 형편이다. 많은 설교집이 있으나 솔직히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설교집에는 많은 예화와 교훈이 소개되어 있으나, 성경 본문의 깊이를 드러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드는 강해 설교집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또한 한국어로 된 주석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번역판 주석은 번역이 난삽하여 읽어 내기가 어렵다. 더구나 주석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또 한 절 한 절 해석에 치중하고 있어 설교의 재료가 되는 성경 본문의 총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는 주석은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설교의 재료가 되는 성경 본문의 총체적인 의미를 살려 성경 본문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만드는 강해설교연구가 절실하다.

따라서 설교자들이 절실하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복음적인 강해설교 자료를 계속해서 목회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교회 말씀 운동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는 강해설교 연구 훈련을 받은 전문연구원들이 집중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를 보급하며, 목회자들을 재훈련하는 연구원과 시설이 필요하다.